

## 제VI부

### 「ある」와 「いる」

제18장에서는,

「ある」가 「존재」를 나타내고,

「いる」가 「내재시스템의 발현결과로서의 존재」를 나타내는 것을 진술한다.

「내재시스템의 발현」이라는 시점에서 찾아본 결과, 「ある・いる」의 차이점, 「～てある・～ている」의 차이점을 통일적으로 포착할 수 있게 되었다.

## 제18장

## 「ある」와 「いる」

## 18.1 존재의 두 형태 「ある」와 「～である」, 「いる」와 「～ている」

일본어에서는, 존재자의 존재를 두 가지 형태로 구별하여 표현한다.

1) 단순히 「존재」하는 것으로서

2) 무인가의 「이벤트와 관련하여 존재」하는 것으로서

일본어는 이 두 개의 존재를 표현하는 방법을 구별한다.

1)의 경우는 「ある」 또는 「いる」의 형태로 표현하고, 2)의 경우는 「～である」 또는 「～ている」의 형태로 표현한다. (13.1)

본고에 있어서는, 1), 2)의 양방의 경우를 통해서, 통일적으로

「ある」는 「존재」를 나타내고,

「いる」는 「내재시스템의 발현결과로서의 존재」를 나타내는 것을 진술한다.

## 18.2 존재 (「ある」와 「いる」)

## 1) 존재 「ある」

일본어에서는 모든 존재자의 존재는 기본적으로 「ある」로 표현할 수 있다. 岩波国語辞典 등을 참고로, 다음과 같은 용례를 들 수가 있다. 구조도도 몇 개 들어보겠다.

光がある(빛이 있다) / 神はある(신은 있다) (図18-1) / 地震がある(지진이 있다) / 傷あとがある(흉터가 있다) / 横浜は東京の南にある(요코하마는 동경남쪽에 있다) / 半年前までここにあった(반년전까지 여기에 있었다) / 明日は試験がある(내일은 시험이 있다) / 二度あることは三度ある(두 번 있는 일은 세 번 있다) / 彼には才能がある(그에게는 재능이 있다) / 甘みのある食品(단맛이 있는 식품) / 病気になることもある(병이 걸리 때도 있다)

인간이나 동물에 대해서도 「ある」가 사용된다.

彼には子が三人ある(그에게는 아이가 세 명 있다) / 賛成の人もある(찬성하는 사람도 있다) / 脚の短い犬もある(다리가 짧은 개도 있다) / 昔昔、欲張りじいさんがありました(옛날옛날, 욕심쟁이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 ありし日の面影(살아생전의 모습) / わが思ふ人はありますや無しやと(古今)(내가 생각하는 사람은 있는지 없는지하고) / ひよこ、あります(병아리, 있습니다)

다음의 것도 관계가 있다.

吾輩(わがはい)は猫である (=猫として存在する, 図18-2)

나는 고양이로소이다 (= 고양이로서 존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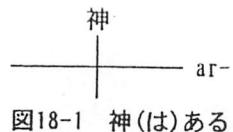


図18-1 神(は)あ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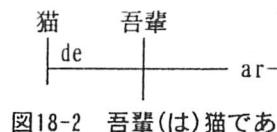


図18-2 吾輩(は)猫である

## 2) 존재 「いる」

그런데, 현대일본어에서는, 그 존재를, 그 존재자가 가진 내재 시스템이 발현결과라고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いる」로 표현하도록 되어 있다.

인간이나 동물의 존재는, 그 존재를 가진 내재시스템인 「존재의 위치를 선택하는 시스템」의 발현결과라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いる」로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무생물에서도, 「존재의 위치를 선택하는 시스템」을 내부에 가지고, 그 시스템의 발현의 결과로서 거기에 존재한다고 받아들여지는 경우에는 「いる」로 나타낸다.

역시 岩波国語辞典 등을 참고로, 다음과 같은 용례를 들 수가 있다.

私は京都にいる(나는 교토에 있다)(図18-3) / 犬がいるよ(개가 있어) /

親がいたらこんなことにならない(부모님이 있으면 이런 일을 당하지 않는다) / あそこ  
にいるバスに乗る(저기 있는 버스를 탄다) /

彼にはいとこが8人いる(그에게는 사촌이 8명 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표현도 관계가 있다.

彼は学生でいる(그는 학생이다)(図18-4)



図18-3 私(は)京都にい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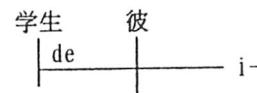


図18-4 彼(は)学生でいる

특히 이 図18-3, 4에 나타나 있는 예와 같이, 「존재의 위치(図18-3에서는 공간적위치, 図18-4에서는 사회적위치)를 선택하는 시스템」의 발현결과로서의 존재를 나타내는 것과 같은 경우, 「いる」에는 존재의 위치를 존재자가 그 때마다 결정하고 있는 에너지가 느껴질 경우가 많다. 「ある」에는 그러한 뉘앙스는 없다. 「彼は学生でいる」와 「彼は学生である」, 「魚がいる」와 「魚がある」를 각각 비교하여 보면 그것을 잘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어떤 존재자가 내재시스템의 발현결과 존재하고 있다고 받아들여지는 경우에는, 그 존재는 「いる」로 표현된다. 그러한 방식을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존재는 「ある」로 표현된다.

### 18.3 이벤트와 관련해서의 존재 (「～てある」와 「～ている」)

#### 1) 선풍기도 돌아가기 시작하면 「～ている」

여기에 선풍기가 있다고 하자. 이 선풍기를 단순히 여기에 존재 할 뿐인 것으로서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ある」로서밖에 표현할 수 없다.

\* 扇風機がいる

선풍기가 있다

라고는 말할 수 없다. 선풍기에는 존재의 위치를 선택하는 내재시스템이 없고, 그 발현의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선풍기가 막 돌아가기 시작했다면 어떠한가?

扇風機が回っている

선풍기가 돌아가고 있다

와 같이 「いる」가 사용되게 된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좋은 것일까?

여기에서 「이벤트」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것은, 「동속성·동사가 가리키는 사태」을 의미하며, 여기에서는 선풍기의 「회는」라는 사태가 이벤트가 된다.

이벤트의 실현과 관련지워진 존재자의 존재는, 동사를 テ形으로 하여, 「～てある」 혹은 「～ている」의 형태로 표현된다. (13. 1) 그래서 이 선풍기의 존재는,

回ってある／回っている

의 어느쪽인가로 표현되게 된다.

「～てある」과 「～ている」를 구별하는 것은, 그 이벤트(회는)가 그 존재주체(주어·선풍기)가 가진 내재시스템이 발현한 것인가 아닌가 하는 점이다. 내재시스템이 발현한 결과로서 받아들여지는 이벤트라면 「～ている」(18. 3 2) 가 사용되고, 그렇지 않으면 「～てある」(18. 3 3)가 사용되게 된다.<sup>43)</sup>

선풍기에는 「돌아가는 시스템」이 내재되어 있다고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이 선풍기에는 「～ている」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 된다.

扇風機が回っている

즉, 선풍기는 돌아가기 시작한 순간에, 단순히 존재할 뿐인 존재자인 것을 멈추고, 「회는」라고 하는 이벤트와 관련된 존재자가 되어, 게다가 「스스로 내재하는 돌아가는 시스템」이 발현한 결과로서의 존재자가 된다. 이 때문에 「回っている(돌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취하게 되는 것이다.

(단순한 존재)

(내재 시스템의 발현과 관련한 존재)

扇風機がある(선풍기가 있다)	扇風機が回っている(선풍기가 돌고 있다)
-----------------	-----------------------

図18-5

## 2 ) 「～ている」

내재시스템의 발현의 예를 몇 개 들어보자.

彼が字を書いている (그는 글을 쓰고 있다)

(그에게 내재하는 「書く(쓰다)」 시스템의 발현 · 図18-6)

彼が車に乗っている (그가 차를 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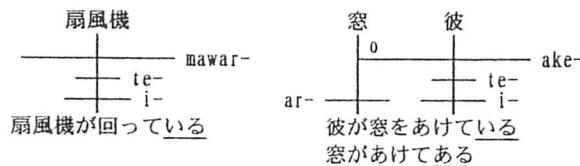
(그에게 내재하는 「乗る(타다)」 시스템의 발현)

窓があいている (창문이 열려 있다)

(창문에 내재하는 「あく(열다)」 시스템의 발현 · 図18-7)

手紙が届いている (편지가 도착해 있다)

43) 구조형식상에서 보면, 「그 존재주체(ar- 및 i-를 가지는 실체)가 그 동속성을 주체로서 가지고 있을 때에 「～ている」가 사용되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てある」가 사용된다」라는 것이 된다.



(편지에 내재하는 「届く(도착하다)」 시스템의 발현)

針が落ちている (바늘이 떨어져 있다)

(바늘에 내재하는 「落ちる(떨어지다)」 시스템의 발현)

料理が出来ている (요리가 만들어져 있다)

(요리에 내재하는 「出来る(완성되다)」 시스템의 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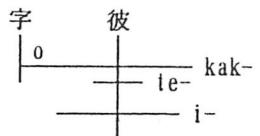


図18-6 彼が字を書いてい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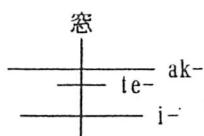


図18-7 窓があいている

이 図18-6, 7의 타일의 구조에서는, 이벤트의 주체가 주어가 되어, 그 주어의 「존재」가 나타나 있다. 그 「존재」하는 주어에 있어서, 그 이벤트는 내재시스템의 발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존재는 i-(いる)로 나타내는 것이다.

이상의 타일과는 별개로, 다음과 같은 형태의 내재시스템발현의 예도 있다.

彼はしかられ(sikar-ar-e-)ている

그는 야단맞고 있다

(그에게 내재하는 수동 -ar-의 시스템의 발현 · 図18-8)

富士山が見え(mi-e)ている

후지산이 보이고 있다

(후지산에 내재하는 허용 -e-의 시스템의 발현 · 図1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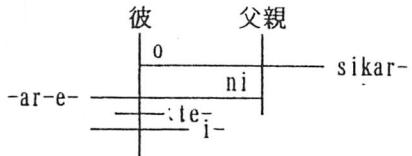


図18-8 彼がしかられている  
-ar-e- は「受動基A」(12.5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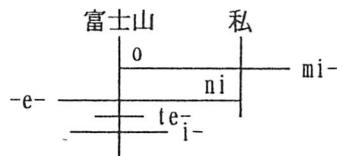


図18-9 富士山が見えている

图18-8, 9 타일의 구조에서는, 이벤트의 주체가 2개 있는 것처럼 보인다. 图18-8에서는 능동주체(아버지)와 수동주체(그)가 있으며, 图18-9에서는 능동주체(나)와 허용주체(후지산)이다. 그러나 图18-8에서의 이벤트는 「しかる(야단치다)」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しかられる(야단맞다)」이며, 图18-9에서의 이벤트는 「見る(보다)」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みえる(보이다)」이다. 그래서, 양쪽 그림의 이벤트의 주체는 능동주체가 아닌 쪽이라고 말할 수 있다. 图18-8에서는 수동주체의 「(彼)그」가, 图18-9에서는 허용주체의 「(富士山)후지산」이 주어가 되어, 그 주어의 존재가 나타나 있다. 그 존재하는 주어에 있어서, 그 이벤트는 내재시스템이 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존재는 i-(いる)로 나타내는 것이다.

그런데, 물론 내재시스템에 없는 것은 발현하지 않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て いる」는 사용할 수 없다.

\* 窓があいている (창문이 열려 있다)

(창문에는 「あける」라고 하는 시스템이 없다., 图18-10)

\* 手紙が届いている (편지가 도착해 있다)

(편지에는 「届く」라고 하는 시스템이 없다)

\* 針が落ちている (바늘이 떨어져 있다)

(바늘에는 「落とす」라고 하는 시스템이 없다. 図18-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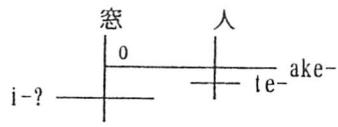


図18-10 窓が開けて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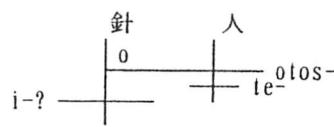


図18-11 針が落として i-?

図18-10, 11의 구조에 있어서는, 「窓(창문)」, 「針(바늘)」의 존재를 나타내려고 하고 있으나, 양자 모두 이벤트 ('あける', '落とす')가 그 양자의 내재 시스템의 발현이 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i-(いる)를 사용하려고 해도 무리한 일이 된다. (18-3 3)참고)

다음으로, 악센트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자. 이 「～ている」는 이벤트 개시 후의 모든 존재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다. 예를 들면 키모노를 「着ている(입고 있다)」는 다음과 같이, 입기 시작한 후, 그 이벤트에 대해서의 기억이 없어지기까지의 모든 존재의 모습을 표현할 수 있다. (제13장 참조)

今着物を着ている (지금 키모노를 입고 있다) (「着る(입다)」동작을 진행중인 존재)

今日は着物を着ている (오늘은 키모노를 입고 있다)

(「着る(입다)」동작의 결과의 상태를 계속중인 존재)

先週は着物を着ている (지난주는 키모노를 입고 있다)

(「着る(입다)」동작을 행한 기억 속에서의 존재)

이 3개의 존재의 모습을 도시하면, 図18-12와 같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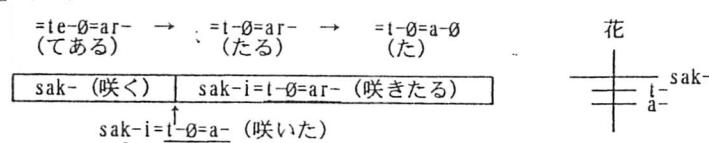
(着る이벤트)		(脱ぐ(벗다))		(망각)
いる	着て <u>いる</u>	着て <u>いる</u>	着て <u>いる</u>	
(진행이벤트)		(결과이벤트<상태>)	(결과이벤트<기억>)	
				図18-12

### 3 ) 「～てある」

일본어에는 원래 본장에서 다루고 있는 「～ている」라고 하는 표현이 없고, 이벤트의 실현이 내재시스템이 발현한 것인지 아닌지라고 하는 시점은 없었다. 이벤트와 관련한 존재는 모두 「～てある」(~たる)로 표현할 수 있었다.<sup>44)</sup>

紫だちたる雲の細くたなびきたる (枕草子・春はあけばの)

44) 이벤트실현과 관련한 존재가 모두 「～てある」(~たる)로 표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축약형의 「～た」가 이벤트의 완료를 나타내게 되었다.



이 예에서는, 「紫だつ」, 「たなびく」는 「雲」의 내재시스템의 발현이라고 생각될 수 있기 때문에, 현대일본어라면,

紫だつている雲が細くたなびいている<sup>45)</sup>

자색 빛을 띠고 있는 구름이 좁고 길게 뻗어있다.  
가 될 터이다. (주 46)참조

현대어에서는 이벤트를 내재시스템의 발현으로 보는 경우에 「～ている」를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である」를 사용하는 것은, 주로 다음의 2개의 경우가 되었다.

그 이벤트가 존재자의

- ① 내재시스템의 발현이 아닌 경우
- ② 내재시스템의 발현이라도 「준비완료」를 표현하는 경우  
이 두 개이다.

이 양자에 대해서, 예를 들어 검토해보자.

① 그 이벤트가 존재자의 내재시스템의 발현이 아닌 경우는 「～である」

이것은 「～である」로 표현하는 제1의 경우이다.

字が書いてある (글이 써여 있다) (「書く」는 글자의 내재시스템이 아니다)

ドアがあけてある (문이 열려 있다) (「あける」는 문의 내재시스템이 아니다)

料理が作ってある (요리가 만들어져 있다) (「作る」는 요리의 내재시스템이 아니다)

本が並べてある (책이 나열되어 있다) (「並ぶ」는 책의 내재시스템이 아니다)

위의 예 「字が書いてある (글이 써여 있다)」의 경우, 쓴 것은 예를 들면 「彼」이고, 「字」가 아니다. 구조는 図18-1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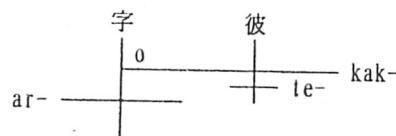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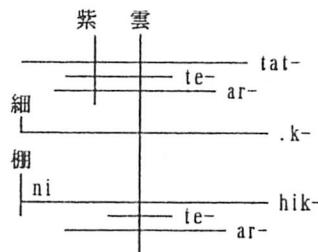


图18-13 字が書いてある

이벤트(書く)의 주체(彼)는 문의 주어(字)와는 다른 존재자로, 이 별개의 존재자(彼)의 내재시스템(書くシステム)의 발현이 있었던 것이다. 이 구조에서는, 문의 주어(字)가, 타자(彼)가 주체하는 이벤트(書く)에 참가된 형태로 되어 있다.

그리고, 어스팩트(相)적으로는, 「～である」는 이벤트 완료 후의 모습만을 나타내고, 특히 「결과 이벤트<상태>」를 나타낸다.(图18-14) 이것은 「～ている」가 이벤트의 진행중을 나타

45) 「紫だちたる雲の細くたなびきたる」의 구조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된다.



현대어에서라면, 이 ar-는 i-가 된다. (「の」에 관한 구조는 생략되어 있다) 「紫だちたる」의 부분은 주체 「雲」이 「紫がたつ」라고 하는 구조단위를 속성으로서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19. 2 3))

낼 수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である」는 「～ている」보다 이스팩트(相)적으로 한정도(限定度)가 높다.

(着る 이벤트)	(脱ぐ(벗다))	(忘却)
アル・イル	着ている	着ている
(진행이벤트)	(결과이벤트<상태>)	(결과이벤트<기억>)
アル・イル	書いてある	書いてある
(書く 이벤트)	(消す(지우다))	(忘却)

図18-14

「～である」는 이벤트 완료 후만의 존재를 나타내는 것으로부터, 한정도가 높고 「준비가 되어있다」고 하는 뉘앙스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이상으로부터, 이렇게 말할 수 있다..... 「～である」는 이벤트의 주체자(彼)가 어떤 의도에서 실행한 이벤트(字を書く(글자를 쓰다))의 완료 후을 나타내고, 그 이벤트의 대상이 된 실체(字(글자))를 주어로 한다. 이벤트(字を書く(글자를 쓰다)) 완료 후의 주어(字)의 존재를 나타낸다.

## ② 내재시스템의 발현이어도 「준비완료」를 표현하는 경우는 「～である」

이것은 「～である」로 표현하는 또 하나의 경우이다. 다음과 같은 예에서는, 당연히 「～ている」를 사용해야 하지만, 굳이 「～である」를 사용하고 있다.

彼は予習をしてある (그는 예습을 해 두었다)

(「予習をする(예습을 하다)」는 그의 내재시스템 図18-15)

彼は薬を飲んである (그는 약을 먹어 두었다)

(「飲む(먹다)」는 그의 내재시스템)

彼は車を待たせ(mat-as-e-)てある (그는 자동차를 대기시켜 놓았다)

(사역기 -as-e-는 그의 내재시스템 図18-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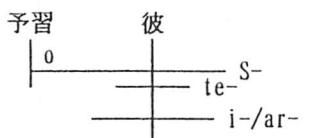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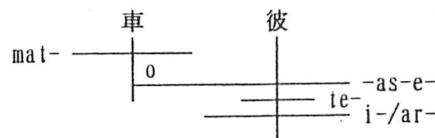


図18-15 彼は予習をしてある

図18-16 彼は車を待たせてある  
-as-e- は使役基(12.5 1) 参照)

「～ている」를 사용하지 않고, 굳이 「～である」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である」의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뉘앙스(①참조)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ている」에서는 표현할 수 없는 존재의 모습이 확대되어 버리기 때문에(図18-14), 좀처럼 한 개의 의미로 한정할 수 없다. 그래서 이와 같이, 내재시스템의 발현이어도, 「～である」로 표현하는 것이다.

내재시스템의 발현이어도 「～である」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である」가 원래 이벤트에 관련한 모든 존재에 적용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18.3 3)첫머리)

또, 図18-5, 16의 구조에서는, ①에서 「彼(그)」뿐만 아니라 「予習(예습)」이나 「車(자동차)」도 ar- 을 속성으로서 가지고, 이중주체가 되는 것이 가능하다. (图18-17, 18) 그 경우에는, 「彼が予習がしてある(그가 예습이 되어 있다)」「彼の車は車が待たせてある(그는 차를 대기 시켜 놓았다)」와 같이 복주어로서 묘사하는 것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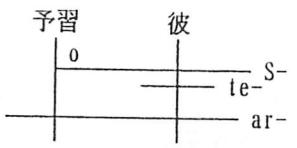


图18-17 彼が予習がしてあ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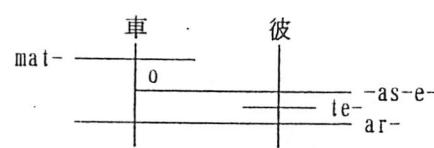


图18-18 彼が車が待たせてある

#### 18.4 「내재시스템의 발현」이라고 하는 관점

이상, 「ある」와 「いる」의 차이, 「～である」와 「～ている」의 차이를 「내재시스템의 발현」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찾아보았다. 그 결과, 종래 따로 떼어서 생각하던 「ある・いる」와 「である・ている」를 통일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종래의 관점은, 생물·무생물의 구별에 있었다. 분명히 「ある」와 「いる」의 차이는 그것으로도 그럭저럭 설명이 가능했다. 그러나, 「窓が閉っている(창문이 닫혀 있다)」와 같은 예에서, 왜 무생물인 「窓」이 「いる」를 취하는지까지는 설명할 수 없다. 기껏해야, 「～ている」라고 하는 형태가 됨으로 인해 「いる」의 실질적인 의미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었다.

또, 「～である・～ている」를 행위의 결과로서의 상태를 나타내는 경우에 한정하여, 「～である」가 타동사와 함께, 「～ている」가 자동사와 함께 사용된다고 하는 설명법이 있었다. 분명히, 한정된 한에서는 그것으로도 좋았다. 그러나, 그것은 타동사가 「店を開けてある(가게를 열고 있다)」와 같이 「～ている」로 사용되며, 또 자동사가 「もう十分泣いてある(벌써 충분히 울었다)」와 같이 「～である」로 사용되어, 역시 행위의 결과로서의 상태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저버린 전제하의 것이었다. 동사의 자타에 의한 설명으로는 불충분하다.

한정적인, 부분적인 설명은 어학교육의 방편으로서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그것들의 부분부분의 배후에 있는 것을 통일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것 이상의 것은 없을 것이다. 「내재시스템의 발현」이라고 하는 관점이 그것을 실현시켜 주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떠한가?